



교육칼럼



박주정
한국고원대학교 연구교수

박용정(전 용연학교 행정실장)

나에게 지난 10년은 꿈같은 세월이었다.
10년이란 세월이 이렇게도 짧을까 싶을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가버린 하룻밤의 꿈이었으리라... 그러나 잠깐 꿈도 깨기로 풀어놓으면 한 토막의 연속극이 되듯이 지난 10년의 이야기보따리가 어찌 가벼울까?
2008년 무더위가 시작되는 어느 날
“자네 대안학교에서 일해 볼 생각 없는가?”
스쳐 지나가듯이 흘려들은 한마디가 용연학교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었다. 그때 나이 40대 중반, 어떤 일이든 겁나는 게

잡어지고 왔다. 페인트와 장대 물러를 장차하고 나타난 분도 있었다.
그 더운 여름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일하면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들이 다 현직 선생님들이었고 방학을 이용해서 자비 봉사를 해주신 것이었다. 후에는 이분들이 법인의 핵심 회원님들이 되었다.
낮에는 낮에 할 일을 하고, 밤에 또 밤대로 할 일이 있었다.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의 2008년 여름이 지나면서 개교 준비를 시작했다.
김철구 교장선생님을 모시게 되었고, 신규

학교를 떠나며

없었다. 뭐든 못하겠나 싶었으니까.
며칠 후 정말로 연락이 왔다.
학교 자리를 알아보러 가지고 한다.
그 당시는 뭘 소리인지 일단 나가서 만나 나 봐야지 싶었다.
화순 터널 쪽을 향하다가 폐교된 초등학교 앞에 차가 멈췄다.
잘 보이지도 않은 희미한 문패에 ‘지원초등학교’라 쓰여 있다.
운동장에 풀은 사람 키를 훌쩍 넘어서고, 교사동 앞에 등나무는 제 맘대로 이리저리 뻗어서 교실이 보이지 않았다.
언제부터 폐교된 곳일까?
운동장 주변으로 심어진 나무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고.
이런데도 학교를 한다고? 설마 다른 데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험한 데를 먼저 보여주는 듯 느껴졌다.
그런데 아니었다. 이곳을 청소하고 리모델링해서 쓰자고 한다.
차~암 돈키호테 같은 사람들이다.
다음날부터 2008년 여름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누구는 굴삭기를 끌고 오고, 또 누구는 전기를 가지고 오고, 또 누구는 법인을 만든다고 동분서주하고, 또 어떤 이는 예초기를

교사도 채용해야 했었다. 생전 처음 채용공고라는 것을 만들었다. 몇 번의 수정에 수정을 통해 공고된 공고문을 보고 네 분의 선생님 과 행정직 한 분을 모시게 되었다.
어렵고 힘들수록 정이 더 돈다고 했던가! 우리들의 집결지? 인연은 그렇게 시작된 거다.
풀을 뽑다가 힘들면 울고, 땅아지 같은 아이들한테 험한 말이라도 들으면 서러워서 울고, 처음 해보는 생경한 업무에 발만 동동거려서 울고, 의욕은 앞서는데 돈은 없고... 이리다 저리다 업무가 익숙해졌나 싶는데 떠날 시간이 된 거다.
누가 가라고 등 떠밀지는 않지만 웃을 수 있을 때, 같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보고 싶을 때, 두고 가는 학교에 자꾸 마음이 쓰일 때, 그때가 떠나기에 제일 좋은 시간이 아닐까 싶다.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할 새벽이 되었다. 10년이라는 깊은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다. 레드 썸!! 썸...
2018. 2.
*개교하기 이전 첫 공사부터 10년 동안 고생하신 용연학교 행정실장 퇴임의 글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주의 추천도서



평생의 묵회와 가르침을 집대성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핵심 통찰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마이클 고인이 40여 년 묵회와 가르침을 통해 다듬어 온 신학적 통찰을 집약한 책이다. 저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이라는 네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풀어낸다. 즉 이 책은 복음을 개인의 구원이나 사후 세계에 국한된 메시지가 아니라, 온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한 이야기로 제시하며, 또한 우리가 그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며 세상을 위해 복음을 살아 내는 선교적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보여 준다. 위상승배적 문화와 개인주의적으로 축소된 신앙을 넘어, 오늘 이곳에서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안내서다.

[출판사 리뷰]
평생의 묵회와 가르침이 맺은 결실



2026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다가온다. 반년의 삶을 평가하며 잘잘못을 평가하게 되지만 언제나 잘한 것 보다는 잘못하고 아쉬운 것이 먼저 떠오르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느낌이다. 신앙인들이 새해가 되면 가장 1순위 목표로 세우는 것은 성경 일독일 것이다. 누구는 3독을 했네 4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1독도 못한 자신에게 자괴감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은 덤으로 따라온다. 성경이 흥미로운 드라마 같은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술술 읽히겠지만, 구약성경부터 순서대로 읽기 시작하면서 점점 손에서 성경이 멀어지게 된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우리의 영원한 숙제인 말씀

기독교 신앙의 정수

『성경은 드라마다』, 『창조 타락 구속』을 비롯한 저술로 수많은 독자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 마이클 고인이 평생 묵회하고 가르친 바를 한 권으로 집약했다. 그는 이 책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이 책은 묵회와 학문의 긴 여정이 맺은 결실을 담고 있다. 책이 출판될 무렵이면 나는 칠순을 맞는다. 여기에 담긴 내용은 세상을 위해 복음을 신실하게 살아 내는 회중을 형성하고자 40년 넘게 이어 온 묵회와 가르침의 정점이다. 이 책은 내가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믿는 바를 집약하여 읽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이 정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소명에 합당하게 형성하며 빛이 가는 힘을 지니고 있다.”
—서문 중에서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이라는 네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풀어낸다. 즉 이 책은 복음을 개인의 구원이나 사후 세계에 국한된 메시지가 아니라, 온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한 이야기로 제시하며, 또한 우리가 그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며 세상을 위해 복음을 살아 내는 선교적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보여 준다. 위상승배적 문화와 개인주의적으로 축소된 신앙을 넘어, 오늘 이곳에서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안내서다.

정을 이 책을 통해 이야기 하고 있다.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부 신학성경은 어떤 책인가? 제2부 신학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제3부 신학성경은 어떻게 연구되었는가? 제4부 신학성경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제5부 신학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제6부 신학성경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6개의 큰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신학성경을 알아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저자는 특히 신학성경에서 다

책을 덮으며 드는 생각은 과연 신학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인지? 아는 지식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함인지?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여정은 결국 무의미하게 힘만 쓰다 끝나버리는 헛된 일이 된다.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저 활자에만 갇혀 있다고 한다면 외식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신학성경과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삶을 통해 보여주신 힘쓰셨던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하는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 본다.

신학성경, 가까이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신학을 공부한 지 4년 정도 지나서야 성서를 분석하고 그 안의 의미를 찾는 일에 평생을 걸어도 괜찮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공식적인 신학자가 되었다. 특별히 신학성경을 연구한 학자로서 신학을 통해 교회 공동체는 물론이고 신자들이 신학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발견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과

루는 성서신학적 방법론이 교회 현장에서도 성서를 읽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책을 저술하게 되었음을 밝히며 어려운 신학 강의가 아닌 성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신학성서를 접하기 전에 이 책을 통해 큰 그림을 한번 접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답을 알고 시험을 보는 학생처럼 즐거운 성서 읽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책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었다.



김병모
한국실로암선교회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션 27주년

기독교 한국침례회

광주제일교회

“다시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는 건강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담임목사 진일교

(61220)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 41 제일교회
T. 062-525-1565 / 010-7997-2891

미션 27주년

대한예수교 연합오순절교회

광주광명교회

표어: 광주광명교회 50주년 회년, 주의 은혜의 해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들 위로하되(사 61:1-3)

담임목사 고석원

교회별 성가는 본을

- 담임목사: 고석원
- 장로: 최규성, 강문삼

예배시간 안내

- 주일낮예배: 오전 11:00
-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 수요일밤예배: 오후 7:00
- 유·초등부: 오후 12:30
- 중·고등부: 오후 12:30
- 청년대학부: 오전 11:00
- 새벽기도회: 매일 5:00
- 금요기도회: 오후 8:00

교회 사명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온 세계로! (행 2:38)

61652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43 전화 062-366-3058 팩스 062-369-3058